

# 사실상 단 한 자리 변화...벤투호, 정예멤버로 레바논 잡는다

### 14일 월드컵 2차예선 4차전...19일에는 브라질과 원정 평가전

### 선수 전원 호출 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2연전...해외파 총출동

11월 A매치 2연전은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온전하게 부를 수 있는 2019년의 마지막 일정이다.

오는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 있으나 국제축구연맹(FIFA)이 관여하지 않는 대회라 소속 클럽들은 선수출발 의무가 없다. 때문에 대회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있는 한국, 일본, 중국 프로무대에서 활약하는 이들로 스쿼드가 꾸러질 예정이다. 벤투 감독 역시 "동아시아컵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준비해야한다"고 변화를 예고했다.

따라서 11월 14일 레바논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4차전 그리고 19일 브라질과의 평가전은 선수 전원을 호출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2연전이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대표팀

스쿼드에 변화가 없다. 언제나 '베스트'를 지향하는 벤투 감독이지만 이번에는 정예멤버가 총출동한다.

벤투 감독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2연전에 임할 23명의 대표팀 명단을 공개했다. 14일 레바논전은 베이루트에서 열리며 19일 브라질전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펼쳐진다.

일단 중요한 경기는 레바논과의 '실전'이다. 예선 H조에 속한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2-0)과 스키라카(8-0)를 이기고 '깜깜이 경기'로 열렸던 북한 평양 원정은 비겨(0-0) 2승1무 승점 7점으로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흐름을 이어가야하는데, 레바논 원정은 H조 8경기 중 가장 까다로운 일정으로 간주된다.

북한이 북병으로 떠오르기는 했

으나 H조에서 한국 다음으로 전력이 좋다고 평가되는 레바논과 적진에서 싸우는 것은 2차예선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날 벤투 감독도 "레바논 원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으려 한다. 승점 3점을 따오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면서 "이어지는 브라질전을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브라질전보다 중요한 것은 레바논전"이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이를 위해 팀의 변화도 최소화했다. 벤투 감독은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황희찬(잡스부르크), 황의조(보르도), 남태희(알사드), 이재성(홍슈타인 킵), 권창훈(프라이부르크) 등 해외파를 모두 호출했다. 발렌시아의 이강인도 중국에서 활약하는 장신 스트라이커 김선욱도 다시 승선했다.

전체적으로 지난 10월에 호출된 명단과 차이가 없다. 당시 멤버 중 백승호(다름슈타트)와 이재익(알리안), 이동경(울산현대)이 빠졌고 주세종(FC서울)이 새로 가세했다. 10월에는 총 25명을 불렀고 이번에는 23명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변화가 없는 스쿼드다. 이재익과 이동경은 사실상 '젊은 피'를 테스트한 성격이 적었다.

명단과 차이가 없다. 당시 멤버 중 백승호(다름슈타트)와 이재익(알리안), 이동경(울산현대)이 빠졌고 주세종(FC서울)이 새로 가세했다. 10월에는 총 25명을 불렀고 이번에는 23명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변화가 없는 스쿼드다. 이재익과 이동경은 사실상 '젊은 피'를 테스트한 성격이 적었다.

요컨대 백승호를 동일한 포지션(중앙 수비형미드필더) 주세종으로 교체한 정도만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벤투 감독은 "주세종이 백승호 자리를 대신해 오랜만에 다시 대표팀에 들어왔다. 최근 2번의 소집 때는 제외됐으나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발탁했다"면서 "특히 레바논전을 염두에 둔 전술적 이유"라고 복안을 공개했다.

10월과 겹쳐 사실상 단 1명만 달라진 셈. 벤투 감독이 지난해 여름 부임한 후 대표팀 소집 면면이 이 정도로 일치했던 것은 처음이다.

현재 면면이 고정멤버라 말할 수는 없으나 대표팀의 큰 틀은 확실히 자리를 잡는 모양새다. 벤투 감독은 "2022 월드컵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고 그때까지 적장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오는 14일 베이루트에서 예정된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H조 레바논전과 19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치르는 브라질과의 친선경기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표팀 문은 닫히지 않는다. 과정 속에서 당연히 다양한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 뒤 "그러나

팀을 운영하려면, 단단하게 다지려면 기초가 형성되어야한다. 멀리(카타르 월드컵) 내다보려면 가까운 곳부터 챙겨야한다"는 말로 기분이 마렷했다는 뜻을 애둘러 전했다.

뉴스1

## '빅4'는 준우·치홍·선빈·지환? 막 오른 FA 시장

### 포수 듀오 김태균·이지영, 베테랑 좌완 정우람도 관심



(왼쪽부터)전준우, 안치홍, 김선빈, 오지환.

프로야구 FA 시장의 막이 올랐다. 거물급 선수가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전준우(33), 안치홍

(29), 김선빈(30), 오지환(29)이 군침도는 매물로 꼽히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지난 3일

2020년 FA 승인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투수 7명, 포수 2명, 내야수 7명, 외야수 3명 등 총 19명이 소중한 FA 권리를 행사했다.

이번 시장에서는 총액 100억원대 대형 계약이 나오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전력을 효율하게 보강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수들도 많다.

전준우, 안치홍과 김선빈, 오지환이 '빅4'로 꼽힐만하다. 네 선수 모두 공수에서 즉시 전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카드다.

전준우는 롯데 자이언츠에서 최근 3년 연속 3할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타율 0.341 33홈런 90타점으로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낸 뒤 타고투저가 완화될 을 시즌에도 타율 0.301 22홈런 83타점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

안치홍과 김선빈은 KIA 타이거즈의 키스톤 콤비다. 두 선수 모두 통산 타율이 0.300에 이르

며, 김선빈은 2017년 타격왕(타율 0.370)에 오르기도 했다. 안치홍은 편치력, 김선빈은 수비력이라는 강점이 보유하고 있다.

오지환은 10년 동안 LG 트윈스의 주전 유격수로 뛴 선수다. 통산 타율이 0.261, 한 시즌 최다 홈런도 2016년 20개에 불과하지만 유격수 수비만큼은 국내 정상급이다. 규모가 작은 구장을 홈으로 쓸 경우 30홈런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따른다.

포수 듀오 김태균(30)과 이지영(33)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리그 전체적으로 포수 품귀 현상을 보이는데다 '심각한 포수난'을 겪고 있는 롯데의 팀 사정으로도 두 선수의 몸값은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다.

김태균은 양의지가 없었다면 충분히 NC 다이노스의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포수다. 실제로 군입대 전 NC의 주전 안방마님으로 활약했다. 이지영은 키움 히어로즈에서 박동원과 함께 안방을 지킨 주전급 포수로,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맹활약했다.

한화 이글스의 '수호신' 정우람(34)은 두 번째 FA 자격을 얻었다. 4년 전 받은 총액 84억원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번에도 정우람의 몸값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우람은 올 시즌 57경기에서 4승 3패 26세이브 평균자책점 1.54로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정우람과 마찬가지로 'FA 재자격자'인 김태균(37), 김강민(37), 유한준(38), 오재원(33), 박석민(34), 이성열(35) 등은 여전히 기량에도 이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대 중후반에 접어드는 나이가 문제다.

김태균과 김강민은 각각 한화 이글스와 SK 와이번스의 프랜차이즈 스타다. 선수도 구단에서 현역 마지막을 보내려는 마음이 강하고, 구단도 선수를 타구단에 보낼 생각이 없다. 두산 베어스 주장 오재원, NC 다이노스 박석민, 한화 이성열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밖에 오주원(34), 진해수(33), 송은범(35), 고희준(36), 손승락(37), 윤규진(34), 이성열(35) 등이 FA 시장에 나왔다.

## 임은수, 피겨 챌린저 시리즈 아시안오픈군

'피겨대주' 임은수(16·신현고)가 챌린저시리즈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임은수는 지난 3일 중국 동관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챌린저시리즈 아시안오픈 트로피 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7.19점, 구성점수(PCS) 63.60점을 획득해 총점 130.79점을 기록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66.84점을 얻은 임은수는 합계 197.63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은수는 지난 시즌에 이어 이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임은수는 "프리스케이팅에서 큰 실수 없이 경기를 마쳐 행복하다. 이번 대회에서의 좋은 기운을 토대로 앞으로 남은 대회에서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랑프리 시리즈보다 한 단계 낮은 이번 대회를 통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임은수는 오는 22일 ISU 그랑프리 6차대회 NHK트로피에 출전, 메달 획득을 노린다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